저소득층 아동 건강한 성장 돕는다

임실군,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4개 영역 25개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 드림스타트가 올해도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욕구를 파악,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대상은 임실군 저소득층 아동 102세대 159명이며, 올해 3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 가족 지원 4개 영역에서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각 담당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선정부터 종결까지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맞춘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드림스타트는 그동안 상담이 필요한 가정에 양육자 상담 및 가족 상담, 언어 발달 지체 아동에게 언어치료, 지리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동심 오감 책놀이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우리 가족 영화 보는 날 등을 운영,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자원봉사활동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과 희망을 나누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부모 교육, 가족 힐링캠프, 졸업여행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실시해 가족 관계를 회복, 가정에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다.

군은 각 기관의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망 구축 및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드림스타트 사업 참여는 임실군 드림스타트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임실군 꿈나무 아동수당을 신설하여 1세부터 17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임실군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유네스코 장 담그기 문화 등재 기념행사' 개최

순창발효관광재단, 도시민 장독대 분양 체험 참가자 모집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오는 4월 5일 '유네스코 장 담그기 문화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는 오랜 기간 지역 사회에 자리 잡아 온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번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인 '장독대 분양 체험'은 참가자들이 순창의 명인·기능인과 함께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고, 명인의 장독대에서 숙성된 장을 각 가정으로 배송받을 수 있어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참가비는 1팀(1구좌 기준)당 110,000원이며, 총 100팀 한정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또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고추장 만들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1인당 15,000원의 참가비로 전통 방식의 고추장 제조법을 배울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고추장 500g이 증정된다. 행사장에서는 순창의 발효 문화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예약은 4월 3일까지 순창발효관광재단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순창전통고추장정보화마을 또는 순창발효관광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번 유네스코 등재 기념행사를 통해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도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그 가치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친환경자재 무상 공급 추진

순창군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월 6일부터 친환경자재 무상 공급을 시작한다.

공급 자재는 고온성 GCM과 BM활성수로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가 수요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72톤을 생산해 2,558여 농가에게 보급했다.

특히 고온성 GCM은 병해충 방제는 물론 작물 생육촉진 효과가 탁월해 경종 농가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BM활성수는 퇴비 부숙과 축사 악취 저감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 축산 농가에도 인기가 높다.

공급은 유등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BM활성수는 매주 월·목요일, 고온성 GCM은 매주 목요일에 가능하며, 올해 3월 6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단, 고온성 GCM은 관련 교육이수자만 수령할 수 있으며, 신규 공급 희망자는(063-650-5645)로 신청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친환경자재 무상 공급을 통해 우리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순창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울서 '백향과' 우수성 알린다

남원농기센터, 홍대역 부근서 내달 5일까지 팝업스토어 진행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지역 특산물 '백향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소비층이 밀집한 서울 연남동 홍대에서 열리며, 남원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목적으로,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서울 홍대역 부근에서 진행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남원뷰티설화 백향편'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춘향이의 숨겨진 미모 비결, 백향과'를 부제로 내세워, 남원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춘향전과 피부 미용 및 건강 효능을 소개해 여신의 과일로 불리는 '백향과'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팝업 스토어에는 남원지역 5개 대표 업체(아리당, 하먼치즈, 비즌, 웅치마을, 한우물식품)가 참여하여 10여 종의 백향과 가공상품을 선보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백향과, 백향과 에이드, 아이스크림, 백향과 탁주, 맥주, 크림찰떡, 비네거사이다 시제품, 크림새우, 강정, 에너지바 등이 준비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다양한 형태의 백향과 가공식품을 맛볼 수 있다.

특히 팝업스토어에서는 백향과 소개 및 가공상품 홍보존을 운영하며, 남원의 특산물인 백향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남원 백향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며,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맛과 경험을 선사할 팝업스토어에 많은 관심과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임실군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로, 관내 관광지 방문, 관내 음식점 이용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일정 인원 이상일 경우 버스 한 대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안내

남원시보건소는 초·중학교 입학 전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필수 예방접종 완료를 안내 권고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으로 총 4종이며,

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으로는 Tdap(Td)(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만 해당)로 총 3종이다.

2025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3월부터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 확대

남원시는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목요 야간 민원실을 오는 3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목요 야간 민원실에서는 여권 발급과 교부뿐만 아니라 외국인 체류지 변경,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확대 운영으로 민원 접수 업무도 새롭게 가능하고 수기로 이루어지며 실제 처리는 다음 날 진행되지만,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 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며, 이번 서비스 확장으로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이번 야간 민원실 확대 운영으로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전술훈련 평가 실시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순창소방서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평가로, 외근 소방공무원 104명이 참여한다.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요구되는 팀워크와 기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훈련 평가 종목은 크게 화재 분야, 구조 분야, 구급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화재 진압은 '4인조법'으로 진행되며, 구조 분야에서는 '수평구조', 구급 분야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사용법'을 평가한다. 각 종목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된다.

/순창=이양원 기자